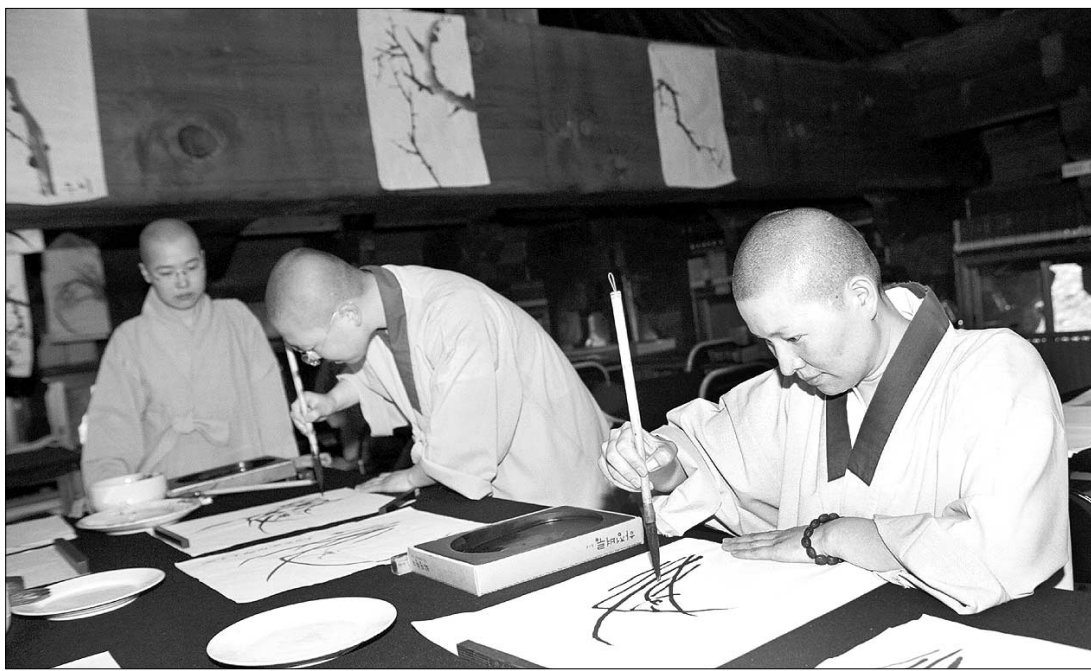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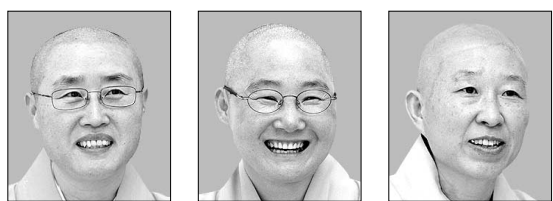
# 50년간 1천명 배출 이력 종장들의 큰 정진터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② 공주 동학사 (www.donghaksa.or.kr)



동학사 강원은 공부와 수행을 겸한 교육과 다양한 외과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사교반 학인들이 난을 치는 모습.



동학사 강원의 종장 스님들. 왼쪽부터 학갑 행오 스님, 종장 수행, 명선 스님.

붓 모양과 같다고 해서 문필봉(文筆峯)이라 불리는 계룡산 자락,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동학사(주지 요명)는 수많은 대학자의 산실인 강원(승가대학)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도량 곳곳의 정갈함과 말쑥함은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1864년 보선(普善) 스님이 비구·비구니 교육을 위해 처음 문을 연 동학사 강원. 1954년부터 사미니 전문강원으로 전환해, 사미니 강원으로는 가장 오랜 50년의 역사를 지녔다. 현재 강주 일초 스님을 비롯해 종장 행오 스님, 수행 스님, 명선 스님이 140여 학인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동학사 강원은 설립 초기부터 공부와 수행을 겸한 전통을 이어왔다. 강의시간에는 사찰 율력을 할 수 없고, 강주 스님과 강사 스님들은 학인들의 강의를 가장 우선시한다.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나누어 보충강의가 이뤄진다. 사찰에서는 도서관과 서예실, 컴퓨터실 등이 자리잡고 있는 강설전을 비롯해 조사전, 육화당 등 6동의 전각을 강원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 중심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과 대종 스님들의 내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논문 2편 이상 써야 졸업 가능

학인들은 새벽예불 직후인 새벽입선부터 취침에 들기까지 공부를 계속한다. 강의는 종장 스님의 논강과 강주 스님의 보충설명으로 진행된다. 강의가 끝나면 그날의 복습과 다음날의 예습, 경전연구 등으로 오후 일과가 이뤄진다. 특히 경전연구에 대한 발표시간을 돕으로써 학인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인들은 반드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강원졸업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수행자로서 지나야 할 학문적 소양 외에도 위의, 본분을 익히는 학습 체계로 자리 잡았다. 내·외전, 교양, 공통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에서도 치밀함이 엿보인다. 특히 사미니과에서 대교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인에게 주어지는 서예·사군자, 태극

권, 영어, 일본어, 꽃꽂이, 다도 등의 외과수업은 동학사 강원의 독특한 커리큘럼이다. 학갑을 겸하고 있는 종장 행오 스님은 "내전에 큰 비중을 두면서도 외전과 교양과목을 중요시해 온 전통은 학인들에게 원형 안에서 책임감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하장 만들어 장학금 등 후원

동학사 강원은 대중정규 뿐만 아니라 학년간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학인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에서 유래했다. 학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승가의 화합정신과 수행자의 밑바탕을 배운다. 학인들의 신행활동은 배움을 많은 이들에게 회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군자와 서예 등 학인들의 솜씨는 축제인 동향제(東香祭)에서 절정을 이룬다. 학인들의 작품으로 연하장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금, 불교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대전 건양대병원의 환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비롯해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인 공주 명주원에서의 봉사도 학인들의 몫이다.

50년의 역사 속에 동학사 강원은 학문과 수행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력종장들의 큰 정진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여기에 사미니와 비구니를 아우르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승가대학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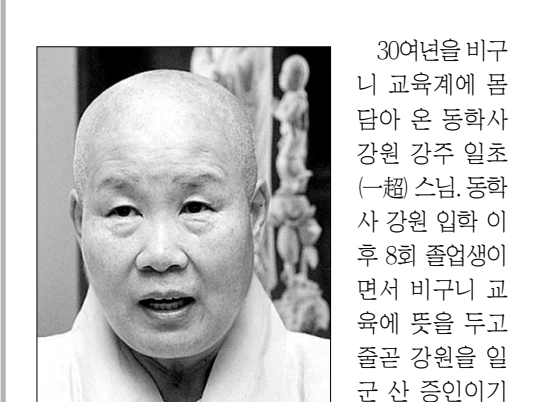
### 동학사 강원이 배출한 인재

비구니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스님 상당수가 동학사 강원을 출신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문헌사 승가대학장, 1회)과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원 스님(2회), 정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8회)이 대표적이다. 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광우 스님, 자제정사 묘희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수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운담 스님, 서울 승가사 상륜 스님, 양산 내원사 주지 혜동 스님, 전 동학사 주지 일연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도 동학사 강원을 졸업했다.

그동안 동학사 강원을 거쳐간 스님은 어림잡아 1천여명. 전체 동문을 대표해 현재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8회)이 회장을 맡아 동문회를 이끌고 있고, 명법(동학사 김상암)과 성지 스님(비유암)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효탄(동국대 강사, 회경(前) 교육원 사무국장), 철우(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대전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종실·경원 스님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박봉영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인터뷰 강주 일초 스님

### "수행 빠진 학문 깊이가 없어요"



30여년을 비구니 교육계에 몸담아 온 동학사 강주 일초(一 초) 스님. 동학사 강원 입학 이후 8회 졸업생이면서 비구니 교육에 뜻을 두고 졸업 강원을 일군 산 스님이기도 하다.

"동학사 강원 교육은 학문과 수행을 겸해 이루어 집니다. 수행자의 학문은 수행을 겸하지 않으면 깊이가 있는 학문을 할 수 없어요."

스님은 이런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켰다. 그래서 "따로 공부시간이랄 것 없이 매사가 공부고 수행"이라며 해(解)와 행(行)이 일치하는 교육을 강조해왔다.

"평생 동안 공부와 수행으로 살아야 하는 스님에게 있어 강원은 밑거름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기초수행과 교육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스님이되기 쉽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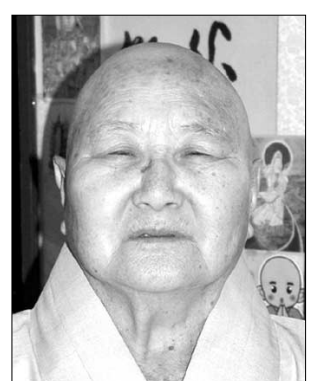
스님은 4년의 강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8년은 해야 한다는 것. 현 교육체계 아래에서 4년 동안 8년의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이 일초 스님의 마음이다.

동학사로 이어져온 호경 스님의 강맥을 이은 일초 스님은 10월 열리는 강원 50주년 기념식에서 경진, 행오, 수행, 명선, 보련, 도일, 범술 스님 등 7명의 제자들에게 전강을 내려줄 계획이다.

## 한국의 비구니 스님 <16> 상덕 스님

### 70여년 무소유 실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다 인거야." 상덕 스님(사진)에게 별문 한자 락 부탁했더니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비구니 암자 약수암 상덕 스님은 세수 80, 법랍 72세로 비구니 원로 중 원로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릴 때 절에 가지 않으면 15세 전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듣고 살았다. 이미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스님의 부모는 귀한 딸을 잃을까 저어해 해인사 약수암 재회 스님에게 보냈다. 이 때가 스님 나이 8세.

세수 40세되던 해, 스님은 그렇게 어렵게 부인사 불사를 마치고는 대중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내놓고 다시 해인사 약수암으로 들어왔다.

어린나이에 약수암 재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5세에 비구니계를 받고 20세에 해인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지금도 그 당시 어머니께서 어찌던 지혜롭게 나를 절집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상덕 스님. 어느 누구 부러울 것 없는 수행자의 삶에 대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 흐트러짐 없이 구도의 길 걸은 '호랑이 스님'

스님은 후학들에게 '호랑이 스님'으로 통한다.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내며 철저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기에 제자들에게 그만큼 철저한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세수 80세인 지금도 스님은 약수암 절을 수좌들이 행어 수행자의 위의를 어긋남까봐 몸가짐 하나 하나를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다.

동진 출가한 스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하고 불지피고, 밭하는 등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이렇게 시작한 수행자의 삶은 13세 때 은사스님을 따라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가서 꽃을 피운다. 스님은 부인사에서 10년을 가장 소중히 기억한다.

스님 나이 20세 때인 해방되던 해 은사 스님이 "네가 불사를 해야 한다"는 한마디를 남긴채 열반에 들자 스님이 모든 절 살림을 맡아야만 했다. 당시 부인사는 기와가 틀어지고 다 쓰러져가는 법당과 요사채가 전부였다.

당시 100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다고 회고한 스님은 7년을 하루 세끼 시래기죽을 끓여 먹으며 농사를 지어 부인사 법당불사에 들어갔다.

"수행자는 그저 편하러면 못 쓴다. 아니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 재가자도 마찬가지다. 옛날 조사 스님들은 그저 몸치미(베개) 하나 베고 좌복 하나 덮고 그렇게 살았다"며 무소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깔고 자리에 누는 것조차 경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부인사는 기와가 틀어지고 다 쓰러져가는 법당과 요사채가 전부였다.

스님 100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다고 회고한 스님은 7년을 하루 세끼 시래기죽을 끓여 먹으며 농사를 지어 부인사 법당불사에 들어갔다.

스님은 후학들에게 "살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라"고 이르고 또 이른다. "내 삶도 나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은하라"고 일러준다. 그런 삶을 행으로써 보여 주는 상덕 스님은 당당하고 자유스런 수행자의 모습으로 약수암을 지키고 있다.

스님이 찾아오거나 하여 죽마저 모자랄 것 같으면 베고프지 않다며 뒷산을 산책하며 다른 이들에게 죽을 양보하면서 오로지 불사에 매달렸던 것이다.

합천=배지선 기자

## 「본 마음 · 참나」 2004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본 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행사일정

차수	기간	정원	대상
1차	7월 30일(금) ~ 8월 2일(월)	70	일반인
2차	8월 4일(수) ~ 8월 7일(토)	70	일반인

●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 (3박 4일) : 일반인(대학생 포함)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정보 : 7월 15일(목)까지이며, 7월 20일(화) 개별 통지함.
- 동참금 : 일반인 7만원(교재포함) \* 접수된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우담 합장**

## 팔공산 은해사 여름 산사수련회

### ~ 구름을 벗어난 태양과 같이 ~

여기 오염되지 않은 산사의 싱그러운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년 역사의 산사에 햇살, 바람꽃, 별빛, 물소리가 생활에 지친 모든이에게 자유와 평화를 드립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을 원하는 사람은 은해사로 오십시오.

차수	기간	대상자	모집인원	회비
1	7월 26일 ~ 28일	중고등학교	100명	30,000원
2	7월 29일 ~ 31일	초등학생	200명	30,000원
3	8월 6일 ~ 8일	대학생/일반인	50명	60,000원
4	8월 13일 ~ 15일	대학생/일반인	50명	60,000원

■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2004년 6월 16일부터 입금완료 선착순 마감
-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은 은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3) 준비물 : 공 통 - 필기도구, 세면도구(상의 T셔츠 지급) 초등부 · 중 · 고등부 - 물놀이 후 갈아 입을 여벌 옷 일반부 - 하얀고무신(수련복은 지급됨)

■ 접 결 시 간 : 당일 오후 3시 은해사

■ 접 수 안 내 : (054)335-3318-9

■ 인터넷 접수 : 은해사 홈페이지(http://www.eunhaesa.or.kr) 약도 및 노선편 참고

■ 입 금 계 좌 : 초 등 부 (농협 723084-51-027083 은해사) 중 고 등 부 (농협 723084-51-027098 은해사) 일 반 부 (농협 723084-51-027102 은해사)

\*입금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참가비 인금이 확인되면 선착순으로 정식 수련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는 분은 2주일전까지 통보치 않을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련생 및 지원 봉사자 참가자 확정 통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발표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서 상세히 작성 -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봉사자 최종 확정하고 지원봉사자 사진 모음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은해사**